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신규사업 눈길

20일까지 노인일자리 신청 AI로봇 키오스크 도우미 등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지난해 대비 23억원을 증액한 154억원을 투입해 총 400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수준·활동역량·경력 등을 고려해 공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취업알선형 4가지 유형으로 진행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한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6개 사업 340명(110명 중)으로, ‘시장형’ 사업을 10개 사업 160명(40명 중)으로 확대한다.

2024년 신규로 시작되는 ‘사회서비스

형’ 사업 중에 ‘재활용 AI로봇 키오스크 도우미’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운영 지원’과 같은 이색적인 사업이 눈길을 끈다.

‘재활용 AI로봇 키오스크 도우미’ 사업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및 사회적 약자들의 키오스크 활용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올바른 분리배출로 탄소중립 기여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운영 지원’은 연

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사업이다. 어르신들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웰 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대상자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과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공사 책임자 안전보건 특별 교육 발주공사업체 대표자 등 대상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7일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 1층 강당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발주공사업체 대표자 및 현장소장 25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관내 공사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 현장 책임자들의 안전보건 의식과 이해도를 높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지 않도록 현장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시는 정경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과장, 문정철 산업안전감독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안전보건의 중요성과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다양한 사고 유형별 안전 수칙을 파악했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례에 기반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공사 안전보건교육 △위험성 평가 등으로 실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부터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사 책임자의 안전보건 의식 함양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김장김치 나눔 활동 봉사 순천종합사회복지관, 31번째

최근 순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허규만)이 사회복지관 광장에서 김장 김치 나눔 봉사를 가졌다.

14일 순천종합사회복지관에 따르면 올해로 31번째를 맞은 김장 김치 나눔 행사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자 120여 명이 배추 1400포기로 320박스(1박스당 10kg)의 김장 김치를 담갔다.

김장 김치는 순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20가구에 모두 전달됐다.

허규만 관장은 “김장 행사는 1년을 마감하는 행사로 자원봉사자 분들이 유쾌한 마음으로 참여하신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김장 나눔 행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매월 300여 명이 이용하는 순천종합사회복지관은 푸드뱅크, 이동빨래방, 경로식당, 식사배달 사업, 어르신 문화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기타 순천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 및 후원 문의는 061-741-3062로 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상반기 공공일자리 모집 순천시, 189명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근로 기회 확충을 위해 ‘2024년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공공근로사업 15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9명으로 총 189명이다.

참여자자는 2024년 2월26일부터 6월9일까지 정보화 추진분야·공공서비스 지원분야·환경정비분야 등 각 분야의 사업장에 배치돼 근무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취업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자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홈페이지 인사 채용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 김장 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순천종합사회복지관 제공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 성탄절 특별 체험프로 운영

기독교 성지 매산등 일원 등 근대 문화유산 답사 행사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22일까지 11일간 순천시립기독교역사박물관과 인근 코트 선교사 가옥 등에서 성탄절 맞이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산등 Happy Christmas’를 주제로, 조선 선교부가 개설한 호남 기독교의 성지인 매산등 근대 문화유산 답사와 함께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체험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산타 디프 만들기 △산타 머리띠 만들기 △크리스마스 양말 만들기 △매산등 풍경 상자 만들기로 준비될 예정이다.

올해는 그동안 개방되지 않았던 매산등 일원의 애양원 사유지 내 근대 문화유산들을 어린이 산타가 되어 답사함으로써, 110년 전 순천 선교사의 크리스마스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함을 더했다.

행사는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13시 총 2회 운영되며, 참가 신청은 포스터 내 QR코드 및 문의 전화(061-751-9945)

를 통해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110년 전 최초로 크리스마스를 기념했던 순천 선교부의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11월부터 매산등 성지순례길 프로그램을 운영해 4대 선교유산(선교·의료·교육·주거) 등 원형이 잘 보존된 근대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취약계층에 ‘겨울철 온기나눔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

산림사업 발생 산물 수집 후 제작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22일까지 추운 겨울 따뜻한 온기나눔을 위해 독거노인 및 사회 취약계층 25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땔감 50톤을 전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행사는 산림사업으로 발생한 산물을 수집해 사용하기 편리하게 알맞은 크기로 제작한 후 대상 가구에 직접 전달하는 나눔 행사다. 대상자는 아궁이나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로, 각 읍·면·동에서 추천받아 선정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 행사는 산물을 수집함으로써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



순천시는 22일까지 취약계층 25가구에 사랑의 땔감 50톤을 전달한다.

순천시 제공

불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며 “갑작스레 찾아온 추위에 시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

을 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청 별관 이전 추진 내년 장천동 메디컬프라자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현 순천시청 별관(장영로 45, 덕정빌딩)으로 사용 중인 건물의 임차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천동 메디컬프라자(중앙로 66, 순천중앙병원 옆)로 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 시청 별관은 순천시가 2013년부터 임차하여 사용했으나, 최근 임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좁은 공간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에 이전할 별관은 2023년 5월에 준공된 9층 규모의 신축 건물로, 기존 별관에 있던 시 7개 부서에서 2026년 12월 까지 사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별관은 시청 인근 대로변에 위치해 접근성이 편리하고 건물 내 민원인 주차장 이용이 가능해 방문하는 시민의 만족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전으로 인해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12월 내 별관을 완전히 이전하고, 2024년 1월부터는 모든 준비를 마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